

시론

사회 곳곳서 새로운 의식 개혁이 일어나야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민주주의 없이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1999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없이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식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부패, 부조리, 비능률, 적당주의, 이기주의 등이 청산돼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고조되고, 공정한 경쟁력에 의해서 성과가 좌우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확립돼야 합니다. 둘째는 21세기의 대격변기에 대처하는 전 국민의 지식인화가 필요하며, 세계화·과학화·정보화 시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의식 개혁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국민적 의식 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공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라고 칭했다.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혁은 낡은 질서를 극복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가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며,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역사는 되풀이된다더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08년 7월 김 전 대통령은 동교동 자택에서 '역사비평'과의 대담에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제 이 나라에서는 어떠한 독재자도, 어떠한 군부도 민주주의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성취해 낸 우리 국민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엄청난 변화, 크게 성장한 국민들의 힘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라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능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며 훼손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바로잡으려다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올해 초부터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의 집권 능력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지당(至當)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민주진보 진영은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2의 건국운동'을 모두로 삼아 윤석열 정부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 제2의 건국운동 필요 김 전 대통령은 "제2의 건국 운동은 국민 모두가 국정개혁의 주체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은 21세기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의식 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개혁 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참여하면 민관이 하나 돼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깨끗하고, 능률적이며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 개혁의 기본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社說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부작용 최소화가 정착의 관건

전남도는 12월 본격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활성화에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쉼터는 농지 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20㎡ 이하 면적으로 제한된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숙박 시설로 활용도 무방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 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에 대해서도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난개발에 농촌주택 거래 감소까지 여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농막의 경우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증축 등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대만 우려'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사각지대를 약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을 위한 임시숙소

형태다. 다양한 농촌 체험과 '4도3촌' 라이프 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의 37%가 귀농·귀촌을 바라보고, 45%가 도농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과 농민,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형주거시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동안 농막의 무분별한 난립 등 온갖 폐해가 발생했다. 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정부는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체류형 쉼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많이 산다는 충격 실태

광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인력 추가적 배치를 비롯해 경찰 등 치안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전체 학교 중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주거 비율은 어린이집 59%,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광주시가 월등히 높았다. 어린이집 76% (834곳 중 637곳), 유치원 73% (254곳 중 185곳), 초등학교 70% (155곳 중 108곳), 중학교 70% (92곳 중 64곳), 고등학교 68% (71곳 중 48곳)로 10곳 가운데 7곳 꼴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어린이집 40% (909곳 중 360곳), 유치원 27% (460곳 중 124곳), 초등학교 22% (448곳 중 98곳), 중학교 22% (254곳 중 57곳), 고등학교 31% (143곳 중 44곳)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성범죄자와 이웃해 사는 충격적 실태다. 우리

아이가 표적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당 법은 아동이 많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아동 성폭행 등 전과 18범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겨 가면서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인원을 투입해 면밀한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별치안센터도 이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가 위험하다.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성범죄자를 못 살게 하면 좋겠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온다.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뒷값을 치렀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자장치 부착도 때로 무용지물이다. 제시카법으로도 한계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종신형 적용 등으로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안전 확보 계획도 지속 보완해야 한다.

문화난장



이 현

아동문학가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려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크르르 잠이 듭니다..." 가끔씩 읊조리게 되는 '섬집아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시작했다가도 끝까지 부를 수가 없다. 어느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질은 그리움에 목안이 울컥, 가슴이 아려온다. 잘 자라 토닥이던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과 자장자장 고운 노랫가락이 그대로 다가와 섬이 되고 숨이 된다. '오빠 생각', '과수원길', '과꽃', '고향의 봄', '풍당 풍당', '파란마음 하얀마음', '초록바다' 등 가끔씩 흥얼거리게 되는 동요들도 마찬가지로. 동요마다 각기 다른 그때의 기억과 추억들이 새록새록 돌아와 리듬이 되고 웃음이 된다. 우리나라 창작동요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의 '반달'에서부터 시작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고민했고, 그렇게 해 탄생한 것이 1924년 윤극영 선생이 작사 작곡한 '반달'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여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 축사를 통해 목소리 높여 외쳤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바람처럼,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탄생해 어린이들의 뜻과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됐다. 고운 노랫말과 단순한 리듬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정서적 위로와 힘이 됐다. 엄마가 불러주던 동요로 시작해 자라면서 부르는 동요로, 엄마 아빠가 돼 자녀들을 위해 불러주는 동요의 맥을 이으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긍정의 기운으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천이 됐다. "동요요? 트로트가 재미있어요!" 동요는 언어의 리듬과 음악성을 자각하는 즐거움이 내포돼 있다. 가사 속 노랫말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애정과 생각의 깊이를 터할 수 있다. 어휘력 향상은 물론 사회성 향상과 질서유지, 마음 표현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마음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요가 사라지고 있다. 친구들과 사귀는 법, 친구 마음 이해하기,

희망과 꿈, 풍요로운 감성 등, 동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생활의 즐거움과 고풍을 익히기도 전에 사랑가에 이별의 아픔에 배신아 주를 이루는 노랫말들이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고 있다. 인생을 많이도 살아온 것처럼, 사랑도 이별도 배신도 많이도 경험해 본 것처럼 얼굴 가득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절절히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깊이를 진실로 경험하고 느끼기도 전에, 마치 다 경험하고 느낀 것처럼 노래하며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키우내게 될지 걱정이 된다. 기초 공사가 되기 전에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것처럼 마음이 위태위태하다. "마음이 즐거워요!" "기분이 상쾌해요!" "동요의 힘이 이런 거군요." 2024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맞춰 탄생한 창작동요 '멋진 내 친구'에 대한 지인들의 반응이 제법이다. 그렇다. 동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한탄만 하기 전에, 동요와 함께 꿈꾸며 성장했던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 부르며 어떨까 싶다. "힘든 친구 이야기는 감싸며 진지하게 듣는 네 모습/ 그제 너의 매력이야/ 그런 모습 나는 좋아/ 그래서 너를 좋아하네... 마음속 동심한 조각 꺼내어 힘차게 노래하며 서로를 향한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 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문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10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된바 있는데 일선 현장 경찰들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늘 긴장 속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곤란한 경우 112문자 신고도 있어 신고전화 한통, 문자 한통에 온 신경이 쏠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12신고 전화를 걸어놓고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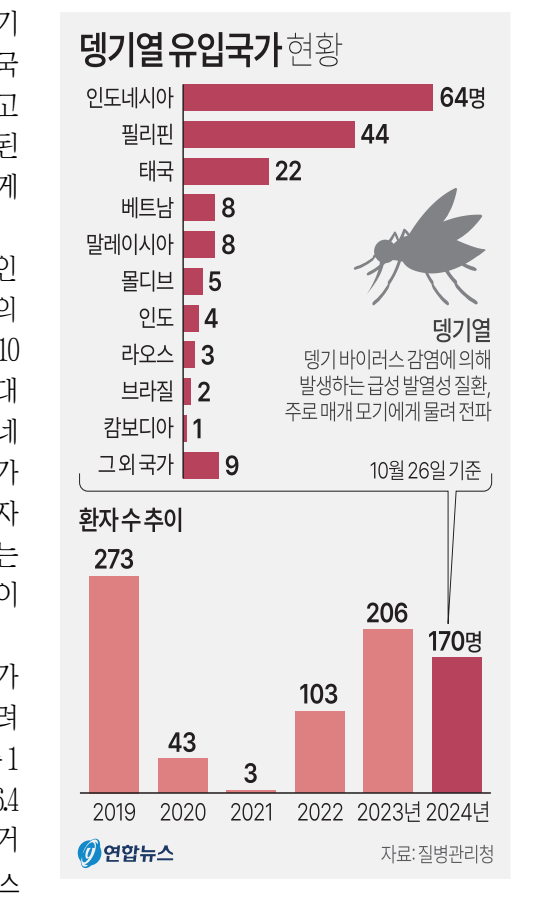
112 허위신고 소중함 골든타임 놓친다는 엄정 대응 하고 있다. 이에 맞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원행방태도죄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음을 주지해 주길 바란다. 오늘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중대범죄 대응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중이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출동 대기중에 있다. 경찰 장비와 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속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때만 112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김덕형·정성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백신·치료제 없는 뎅기열 해외서 유행...여행시 모기 주의해야

최근 한국 대학생이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가 뎅기열에 감염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요 국내 뎅기열 유입국인 필리핀 등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상용화된 뎅기열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방역당국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한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요 뎅기열 유입국인 필리핀에서는 지난 4일 기준 누적 26만9천94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02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약 4만3천200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40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염자는 25배, 사망자는 약 3배로 늘어났다. 지난 7월에는 비유행 국가였던 이란과 프랑스 등에서 지역감염이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발생 환자도 전년 같은 시기 대비 증가했다.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했다. 올해는 이달 26일 기준으로 총 1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동기 146명보다 16.4% 늘어났다. 국내 뎅기열 환자 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줄었다가 다시는 추세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650-2016
편집국 650-2017
인쇄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